

# 민주 “양 지지층 결집에 50곳 경합”

### 한병도 전략본부장 간담회…“정권 심판 흐름이지만 판세 안심 못해”

4일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우세 지역구는 110석, 경합 지역은 늘면서 50곳 이상이다”고 밝혔다.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간담회에서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고 양당이 결집하면서 경합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분석해온 판세에서 큰 변동은 없는 수치다.

한 본부장은 확실한 우세 지역구와 경합 지역구 전망치를 묻는 말에 “(우세 지역구) 110석에 경합 지역은 확대돼 50석이 더 될 수 있다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에 힘 실어주는 기류, 이에 위기감을 느끼는 기류 등 양당의 결집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뚜렷한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박빙 지역이 워낙 많고 연령대별 투표율, 막판 보수 결집을 감안하면 예측이 어려우나 과반 달성을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 격전지 분포와 관련해선 “경합지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곳은 수도권뿐 아니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함께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총선을 통해 심판해야겠다는 여론은 지역구분 없이 전국적 현상인 것으로 보는 게 맞고 수도권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만, 승기를 잡았거나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 본부장은 “최근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하향 흐름을 그리다가 윤석열 정권 심판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상승 국면을 맞이한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위기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다닐 것”이라며 “경합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위기감을 조성, 지지층 투표 참여를 적극화해 경합지역을 이겨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위기론을 통한 돌파 전략이 잘 먹히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의 의석수 전망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본부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민주당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며 (국민의미래와) 양분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한 본부장은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와 수원정 김준혁 후보의 편법 대출 및 막말 논란이 판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엔 “일부 후보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한 행위와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경기도에서 최근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을 두고 전격 검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에도 화살을 돌렸다.

한 본부장은 “금감원이 너무 갑작스레 검증에 뛰어든 느낌”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공세에 금감원이 관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실체와 별도로 총선을 앞두고 관련 선거 개입, 관련 네거티브가 확대 재생산될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표라도 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며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이재명 “선거 예측 못해...투표하면 이긴다”

### 부산서 민주 후보 지지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박빙 지역에서 지면 과반수의 의석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산 영도구 박영미 후보 지지 유세에서 “전국의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의 한강 벨트, 지금 만만치가 않다”며

“혹시 일부 언론에 속아서 승부라고 하는 것이, 선거의 승패가 수십 퍼센트의 격차로, 수만수천표씩의 표 차로 결판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느냐. 단 0.73% (포인트)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을”이라며 지난 대선 결과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속아서서 안 된다. 지금의 선거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앞으로는 완전히 외면하라. 지금 중요한 건 투표하면 이

긴다. 포기하면 진다, 막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번에 회초리를 들어 달라. 우리가 내뿜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박빙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승리, 민주당이 패배해서 그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에 입법까지 좌지우지해서 온갖 법을 개악시킬 것이 고 개혁 입법 막을 것이고 국회에 유일하게 남은 국정 감시 견제 세력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 광주일보 공동기획

## 구·시·군, 각 1곳서 개표...100% 수검표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한 걸음 더’

〈5〉 나의 소중한 한표 어디로 갔을까, 개표

◇개표 사무원·참관인 위촉과 개표 방법=4·10 총선 개표는 선거일 오후 6시 이후 각 개표소에서 진행된다. 광주 개표소는 5개 구에 하나씩 있으며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등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한다.

선거일투표는 투표구 단위로, 관내 사전투표는 읍·면·동 단위로 개표한다. 개표는 투표한 개표와 투표지 정리(개합부), 정당·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투표지 수검표 후 심사계수기 이용 투표지 재확인·계수, 개표상황표 점검,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투표구별 개표 결과 공개, 개표 결과 보고 및 공개 순으로 진행된다.

◇투·개표 결과 공개=각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수를 집계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의 투표 마감상황(투표율)을 취합해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해 투표 진행상황을 1시간 단위로 공개한다.

이때 공개하는 투표율은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교부 매수를 근거로 집계한 잠정 투표율이며, 최종 투표율은 개

표가 모두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개표 결과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구 단위로 개표가 끝날 때마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한 후 개표소 내 게시판에 개표 상황표 사본을 게시한다.

위원장 공표 후 개표 결과를 보고시스템에 입력하고, 각 개표소 개표 진행 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방송사에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거소·선상·재외투표 등 우편으로 접수된 투표지는 일반 투표와 별도로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투표함 개합, 회송용 봉투 확인, 봉투의 개봉, 선거별 투표지 구분·정리, 정당·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및 심사·집계 순으로 진행된다.

◇4·10 총선의 개표 제도 개선=이번 총선에서는 수검표가 도입된다. 이전 선거까지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심사계수기를 이용해 후보자(정당)별로 심사·확인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부터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확인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한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원본 보존하는 것도 개선된 사항이다. 이전 선거까지 개표 종료 후 투표지 분류기에서 만든 이미지를 별도 저장 매체에 백업하고 분류기 내 이미지 원본 삭제(백업 매체는 봉합·봉인)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임기 만료 시까지 투표지 분류기 내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보존하기로 했다.

이로써 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총선 브리핑

## 송영길, 구치소서 총선 ‘옥중 연설’ 9일 방송

### 소나무당 광주 서구갑 후보

법무부가 보석 청구 기각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 중인 송영길(61) 소나무당 대표의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 요청을 받아들여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날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 후보자가 구치소 안에서 방송 연설을 녹화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

소나무당은 “전남도선관위로부터 옥중 방송 연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 광주 KBS와 방송 연설 계약을 맺었다”며 “4일 오전 9시 방송국측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연설 장면을 촬영한 후, 4일·9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하고 8일에는 오전 8시 48분 광주 KBS-1라디오에서도 송 대표 연설을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